



들꽃편지 653

2023.6.21. 하지
<https://cyw.pe.kr>

똥과 보물

사랑하는 자매님 형제님 안녕하세요?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길가에 앉아 울고 있는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이보슈, 왜 거기서 울고 앉아 있소?” 그가 대답했습니다.

“가난한 내 신세가 하도 처량해서 눈물이 그치지 않네요. 세상천지에 내 것이라곤 남아서 버려도 누가 주워가지도 않을 이 똥가방 달랑 하나뿐이니...”

그런데 소매치기가 살금살금 다가와서 갑자기 그 가방을 빼앗아 달아났습니다. 그는 뒤쫓아가며 소리쳤습니다.

“이보슈~! 그것마저 없으면 난 완전 빈털터리란 말이요.”

그가 엉엉 울면서 달려가다가 길바닥에 버려진 가방을 발견하고 얼른 주워 부둥켜안고 큰소리로 외쳤습니다. “아이쿠~ 하나님! 고맙습니다. 저의 전 재산인 보물 가방을 찾았어요. 고맙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야까 그 사람이 뒤에 걸어오며 말했습니다.

“저참! 이상하네요. 어떻게 같은 가방이 금방 ‘똥가방’이 되었다가 금방 ‘보물가방’이 되어 사람을 울게도 하고 웃게도 하지요?”

그러니까 마음 문제네요. 똑같은 물건이라도 똥처럼 여기면 똥가방이고, 보물처럼 여기면 보물 가방인 것이네요. 자신의 인생을 똥처럼 여기면 똥같은 인생이고, 자신을 보물처럼 여기면 보물같은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도가에서는 인생은 무(無)라 하고, 불교에서는 인생은 공(空)이라 가르칩니다. 그 나름의 깊은 의미가 있을 것이나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기독교에서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무흠무결(無欠無缺)하게 만들어진 작품이라고 합니다.(전7:29,창1:26-2,창5:1-3,9:6,고전11:7) 사람은 에덴동산에서 잃어버린 원래의 그 완벽한 모습을 회복하기 위해 예수를 믿어야 한다고 합니다.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는 날 아침에 최용우 올립니다.



□ 느낌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교회와 선교회가 힘을 합쳐야 합니다.

하나님의 법

하나님께서
인간을 심판하실 때 조사하실 내용은
그가 인간이 만든 어떤 법을
지켰느냐 어겼느냐가 아니라
당신의 법을 지켰느냐 어겼느냐다.

그리고
그것을 알았느냐 몰랐느냐도 아니다.
하나님의 법은 사람이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그의 양심에 새겨져 있다.

따라서
나는 그것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인 줄 몰랐다는 변명은,
그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통하지 않는다.

©이현주/ 목사, 동화작가



회개44 겹은 번지르르 합니다

할머니 한 분이 경비실을 노크 하였습니다.

“이거 먹어봐.”

굉장히 크고 싱싱한 사과였습니다.

출출하던 차 먹으려고 껍질을 벗기고 자르니

속이 푹 썩어 있어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빛 좋은 개살구가 아니라 ‘빛 좋은 사과’였습니다.

잠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나는 주님 앞에 이런 모습은 아닌지

겹은 번지르르 합니다.

겸손한 척 합니다.

온유한 척 합니다.

착한 척 합니다.

속은 썩을 대로 썩은 모습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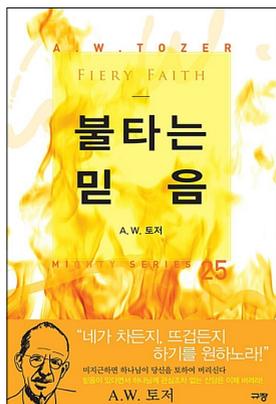
“오 주님 어찌하여야 하는지요.”



©손제산 목사 (은퇴 목사)

아파트 경비원으로 첫날 근무하는데 아파트 관리소장님이 왕년에 목사님이 셧다며 할머니들에게 인사를 시킵니다. 그 후 할머니들은 저를 ‘목사님 아저씨’라고 부릅니다. 어린 공주님도 배꼽 인사를 하면서 “목사님 아찌 안녕 하셔유?” 은퇴 후 새로 생긴 이름 ‘목사님 아저씨’ 저, 괜찮은 것 같네요.

불타는 믿음



토저 마이티 시리즈 25
A.W 토저 지음/이용복 옮김
232쪽 13,000원 규장 2017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아담의 죄성을 물려 받은 자아를 전혀 불편하게 하지 않는 선에서 믿음생활을 한다. 그리스도를 향한 뜨거운 사랑이 그분을 영접했다는 사람들에게서 발견되지 않는다. 구원받았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과 굶주림이 없다.

1. 사랑의 하나님

에덴동산의 사탄은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에 대한 저급하고 비열한 개념으로 왜곡시키고 추악하게 만드는데 성공한 것 같습니다. 그리하여 바리새파 사람들은 하나님이 엄하고 가혹한 분이라고 생각하고 나름대로 꽤 높은 ‘외형적’ 도덕을 유지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섭게 책망부터 하시는 분이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2. 자비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모든 존재 중에서 가장 나의 마음에 가까이 계셔서 나의 마음을 끄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큰 기쁨이며 하나님은 사랑이 가득하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사랑’ 외에 다른 것을 더 알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에게 자비하신 분이십니다.

3. 선하신 하나님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언제나 마음이 조마조마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생각을 다 알고 계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시139:2-3) 그러나 하나님은 인내심이 무한하시고 선의가 넘치시십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선하게 살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그분의 선하신 사랑에 의지하는 것입니다.

4. 자주 만남

하나의 인격체가 다른 인격체를 충분히 알려면 한 번의 만남으로는 부족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도 마찬가지입니다. 삶 속에서 날마다 자주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가능하면 정기적인 만남의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좋고, 수시로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하나님과의 만남이 생동감 있고 활기가 넘치게 됩니다.

5. 충동과 반응

문득문득 하나님을 찾아야겠다는 충동을 느낀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고 싶어서 그분이 먼저 부르시는 것입니다. 이런 충동에 얼마나 반응합니까? 가끔, 혹은 불규칙적으로 반응할 뿐이라면 하나님과의 친밀해지기 어렵습니다. 다른 이 들이나, 서적이거나, 어떤 것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직접 부르심에 직접 대답 해야 합니다.

6. 지름길은 없다

더 깊은 영적 삶으로 들어가는 지름길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조바심과 조급 함에 동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현대 문명의 여러 가지 기법들이나 학문이나 방법들을 받아들이신 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을 알려면 무조건 시간을 드려야 합니다. 시간과 깊음은 비례합니다. 그분을 아는데 투자되는 시간은 절대로 낭비가 아닙니다.

7. 일시적인 무신론?

현대의 신앙인들은 과거의 하나님과 미래의 하나님은 믿으면서 현재의 하나님은 믿지 않는 '일시적인 무신론자'가 많습니다. 그리하여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하루하루 순간순간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그분이 과거에 행하신 것, 지금 행하고 계신 것, 미래에 행하실 것까지 모두 믿는 것입니다.

8. 전부의 사랑

하나님은 나에게 사랑의 일부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마치 다른 사람에게는 전혀 줄 사랑이 없는 것처럼 그분의 모든 사랑을 다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각 개개인에게 전부를 다 주시는 사랑입니다. 만약 이 사실이 실감 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받아들이 않기 때문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9. 하나님의 실재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실재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와 습관적이고 의식적으로 교제를 나누지 못합니다. 그냥 '관념'적인 믿음으로 단순한 원리를 따라 평생을 보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도 모르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하는 것도 모르고 삶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거룩한 기쁨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10. 믿음과 욕망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대감이 없는 사람에게는 ‘강한 욕망’만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없는 사람들에게 부정적 사고를 몰아내고 목표 지향적, 긍정적, 적극적 사고방식을 ‘믿음’인 것처럼 말하는 책들이 엄청난 베스트셀러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니고 ‘욕망’입니다.

11. 믿음과 실재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실재’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상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존재하게 하셨고 그분의 약속은 허상이 아니라 실상이며, 우리는 하나님의 실상을 진심으로 느끼려고 한다면 그 방법을 얼마든지 찾을 수 있습니다.

12. 기대감

성장하는 교회에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것이 긍정적인 것이든 부정적인 것이든 성도들을 반응하게 하는 어떤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러나 침체된 교회에는 ‘기대감’이 없습니다. 성도들이 모여도 어떤 특별한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하여 성도들은 ‘권태감’을 느끼게 되고, 목회자는 각종 프로그램을 만드느라 정신 없습니다.

13. 신앙은 여행길

신앙은 침대에 편히 누워 주님의 승리의 날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여행길’을 가는 것입니다. 시간을 내어 여행에 대한 정보도 찾아보고 다른 사람들에게 조언도 듣고 철저히 준비해서 떠나는 것입니다. 때로는 길을 잃을 수도 있고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얘기치 않은 많은 일들을 만나겠지만, 여행 그 자체를 즐기는 것입니다.

14. 도덕적 선택이 아닌 믿음

믿음은 성경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수동적으로 묵묵히 받아들여야 하는 도덕적 선택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사는 길은 모든 행동과 생각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며 삶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이 길에서 신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져야 하고 ‘자신을 작은 존재로, 하나님을 크신 분으로, 그리스도를 무한히 소중한 분으로’ 여겨야 합니다.

15. 모조품 신앙

믿음을 고백하는 수 많은 신자들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지 않은 것처럼 행동합니다. ‘모조품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도움이 주어지지 않았을 때를 대비하여 늘 탈출구를 마련해 놓고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움은 반드시 주어집니다. 다만 그것이 인간의 때와 방법으로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16. 말씀을 들을 자격

말씀을 받아들이기엔 적당한 마음 상태가 되지 못하면 설교를 들어도, 좋은 책을 읽어도, 성경을 읽어도 별로 얻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받아들이려면 먼저 영적, 도덕적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마11:25-26, 고전2:14) 목사만 자격을 갖추어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도 설교를 들을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17. 자격을 갖추면

말씀을 들을 자격을 갖추었다면 하나님은 때로 개떡같은 설교로도 형용할 수 없는 은혜를 받게 하십니다. 수탉은 자기가 무슨 역할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울었지만 베드로는 회개의 눈물을 강물같이 흘리면서 새사람이 되었습니다. 어거스틴은 친구가 번개에 맞아 죽는 것을 보고 회개하고 나서 엄청난 대작(大作)을 쓰게 되었다고 합니다.

18. 신자와 성도

어린이의 신앙에 머무르는 사람은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없습니다. 어린이 신앙은 '신자'에 불과합니다. 진리에 대한 굶주림을 느끼고, 영적 메마름을 경험하고, 선악을 명확하게 분별해서 악을 피하고 선을 행하면서 어떠한 폭풍과 비바람에도 흔들림 없는 믿음을 고백하는 신앙을 가져야 비로소 '성도'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19. 설교자의 책임

몇 개의 기본적인 진리만 끝없이 반복하는 설교자는 하나님을 살아있는 관계로 만나지 못했거나, 예언자적 통찰력이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그런 목회자를 둔 교회는 불행합니다. 교인들이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설교 시간에 조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생생하게 만나지 못하여 새로운 것, 새로운 것이 없는 목회자 때문입니다.

<독서일기> 책을 읽으면서 한 챕트를 200자 원고지 한 장 길이로 요약하거나, 제 말로 바꾸어서 원고지 한 장 길이로 쓴 것입니다. -최용우

양치질

입안에 벌레가 꿈틀꿈틀
세균이 이를 바각바각 갉아먹어
막내딸을 겁주는 아내

치과의사 마귀 아저씨
엄청 아프게 이를 빼
첫째 딸에게 공갈치는 아내

임플란트 한 대에 얼마지
돈이나 많이 벌어들이면 몰라
남편을 협박하는 아내

우리 식구들은
아내의 맞춤 잔소리 들으며
모두 함께 치키푸카

최용우 제8시집<일상의 행복>



[덧글]

4760 /양치질을 잘합시다. 그동안 치과에 가져다준 돈이 얼마나...



일상 가운데 입하신
하나님을 찾는 즐거움과
행복을 보여주는 시집

일상의 행복

최용우 지음
210쪽(울컬리) 13600원



일상 가운데 입하신
하나님을 찾는 즐거움과
기쁨을 보여주는 시집

일상의 기쁨

최용우 지음
210쪽(울컬리) 13400원

정령들과 천사들의 비교



250.정령을 교만하게 만드는 지식의 종류

만약 정령이라는 단어의 유래를 성경에서 찾는다면 ‘지식’을 뜻하는 ‘다이몬’이 있다. 사도 바울은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고전8:1)라고 했다. 사랑이 없으면 지식은 도움이 되지 않으며 사람들을 우쭐하게 하고 헛된 망상에 빠져 오만하게 한다는 뜻이다. 정령들 안에는 사랑 없는 지식만 있다. 그래서 그들은 아주 우쭐거리며 오만해져서 참된 하나님만 받아야 할 신성한 영광과 종교적 섬김을 자신들에게 달라고 한다.

251.주님은 어디까지 정령에게 알려지기를 바라는가

정령들은 주님이 육체의 연약함을 두르고 오셨을 때 이렇게 말했다. “나사렛 예수님, 어찌하여 우리를 간섭하시려는 것입니까? 우리를 없애려고 오셨습니까?”(막 1:24) 정령들은 상당한 지식은 가지고 있으나 사랑은 없다. 정령들은 별 받는 일은 두려워 했지만 예수가 오신 정의는 사랑하지 않았다. 예수는 정령들에게 믿음 깊은 사람들을 비취주는 변하지 않는 빛과 영원한 생명은 알리지 않았다.

252.선한 천사들과 정령들의 지식 차이

천사들에게는 물질적이고 일시적인 온갖 지식이 아무런 가치가 없다. 천사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만이 고귀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가슴속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불타고 있다. 그리하여 모든 선한 것의 선이신 하나님을 그 자체를 누린다. 그래서 거룩한 천사들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시간적이고 변하는 일들의 원리와 원인을 보기 때문에 그들의 지식은 더 확실하고 고귀하며 행복하다. 그러나 정령들은 기본적인 지혜들을 하나님 안에서 보지 않는다. 인간들에게 감추어진 지식의 징표를 인간들보다 조금 더 볼 뿐이다.

253.이교도들은 신들의 이름을 잘못 쓰고 있다

정령(다이몬)이라는 이름은 혐오스럽기 때문에 거룩한 천사들에게 쓰는 것은 피해야 한다. (계속)

겸손 1



1. 겸손은 힘들다

오늘날 한국 기독교에서 가장 찾아보기 힘든 성령의 열매가 무엇인가? 바로 겸손(謙遜, humility)입니다. 겸손이 무엇인지 알려면 겸손의 반대말부터 알아야 합니다. 교만, 자랑, 거만, 오만, 자고(自高)입니다. 오! 어쩐지 우리와 친숙한 단어들이네요.

‘겸손’은 히브리어 ‘히트랍페스’인데 문자적 의미는 ‘자신을 짓밟는다’는 뜻입니다. “네가 만일 네 이웃을 위하여 보증을 섰다면,...가서 네 자신을 낮추고(히트랍페스-네 자신을 짓밟고) (돈을 돌려 달라고)이웃에게 끈덕지게 간청하여라”(잠6:1-5) 돈을 빌려줬다가 받아내기 위해서는 최대한 ‘자존심’을 죽이고 좋게 말하는 것! 아... 확 고소를 해버리고 싶겠지만 그래도 이를 양물고 참으며 걸으려는 웃으면서 “내 돈 좀 돌려줘!”라고 최대한 상냥하게 말하는 태도를 ‘겸손’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왜 ‘겸손’과 거리가 먼가요? ‘유교’와 ‘성리학’이 기독교에 끼친 나쁜 영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 기독교는 유교의 장유유서(長幼有序)정신에 충실하여 ‘목사-장로-권사-집사-평신도’의 서열을 엄격하게 따집니다. 어떤 교단은 ‘목사도 장로다’라며 장로의 서열을 목사 위에 두고 장로가 목사 면접을 봐서 고용을 하고 맘에 안 들면 쫓아버립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겸손’을 찾기로 나무에서 물고기를 찾는 격이지요. 아무튼지 한국 교회에서 ‘겸손은 힘들다!’

겸손은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자각하고 ‘회개’한 사람에게 열리는 회개의 열매입니다.

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과 불쌍히 여겨주심 없이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은 자동으로 겸손해집니다. (7510)

2. 겸손의 은혜

그리스도인에게 ‘겸손’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베드로전서5:5) 어거스틴에게 한 제자가 질문했습니다. “스승님! 기독교 최고의 덕은 무엇입니까?” 어거스틴은 “겸손이네” 하고 대답했습니다. 제자가 “그러면 두 번째의 큰 덕은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더니 “두 번째도 ‘겸손’이네” 제자가 “그러면 세 번째도 역시 겸손이겠군요.” 어거스틴은 대답 대신 빙긋 웃었습니다.

겸손은 손을 싹싹 벌고, 허리를 굽실거리고, 얼굴 표정을 이상하게 하고, 목소리를 작아내려갈고 개구리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위선이며 기증한 행위입니다. 겸손은 비굴한 행동이나 자기를 격하시켜서 묘한 즐거움을 느끼는 새디즘(sadism)이나 매조키즘(masochism)이 아닙니다.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못나고 부족한 모습을 깊이 깨닫고 저절로 그분 앞에 머리를 숙이고 매달리고 의지하는 자세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낮추고 주님을 높이며,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며, 자신을 자랑하지 않고 주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겸손한 자가 받는 복에 대한 성경 구절은 넘쳐납니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라.’(시22:26)

‘겸손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잠22:4)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잠29:23)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잠18:12)

‘하나님은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느니라.’(잠3:34)

(7511)

3. 예수님의 겸손

그리스도인에게 ‘겸손’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원숭이 한 마리가 “나보다 나무 잘 타는 놈 있으면 어디 한번 나와 보라구!” 하고 뿔내면서 나무와 나무 사이를 건너 뛰다가 썩은 나뭇가지를 붙잡고 땅에 떨어져 엉덩이가 깨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엉덩이가 빨개졌다는 별로 신빙성 없는 헛소리.

만약 겸손한 원숭이라면 “주님, 제가 아무리 나무를 잘 타도 그것은 주님이 주신 재능입니다.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다’라는 속담이 있지요. 제가 실수

로 나무에서 떨어져 뇌진탕 걸리지 않게 해 주소서!”하고 기도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겸손’에 대해서 성경에 아홉 번이나 반복해서 설명하십니다.

①예수님은 ‘8복’을 통해 천국은 겸손한 자를 위한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②예수님은 나에게서 온유와 겸손을 배우라고 하셨습니다.(마11:29) ③예수님은 제자들이 ‘천국에서 누가 크냐’라는 주제로 다룰 때,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눅9:48)고 하셨습니다. ④예수님은 세배테의 아들들을 천국에서 높은 자리에 앉혀달라고 했을 때 “으뜸이 되려면 먼저 종이 되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마20:27-28) ⑤예수님은 상석에 앉기를 좋아하는 바리새인들에 말석에 앉으라고 하십니다.(마23:11) ⑥예수님은 혼인 잔치에 청함받은 비유를 들며 자기를 낮추라고 하십니다.(눅14:11) ⑦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에서 자기를 낮추는 자가 높아진다고 하십니다.(눅18:14) ⑧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십니다.(요13:14) ⑨예수님은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눅22:26-27)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겸손’ 전문가이셨습니다. (7512)

4. 겸손 전문가

그리스도인에게 ‘겸손’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겸손하셨던 ‘겸손’ 전문가 예수님께 직접 겸손을 배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마11:29)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러한 겸손한 마음을 본받아야 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빌2:5)

제가 사는 세종시는 정부 청사가 있어서인지 고위층에 있는 ‘장관’이나 ‘국무총리’를 식당에서 우연히 만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마치 조폭처럼 까만 옷을 입은 부하들을 좌우로 우루루루 물고 다니면서 자신의 힘을 과시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수행 비서와 단둘이 근처 식당을 찾아 식사하는 것을 뵈는 적도 있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을 좌우로 대동하고 다니면서 힘을 과시하셨을까요? “그분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 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빌2:6-7)고 하신 것으로 봐서 아마도 걸으려는 누가 예수님인지 모를 만큼 평범한 모습으로 사람들 사이에 섞여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메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마21:5) 오늘날로 치면 ‘경차’를 탔다는 말씀입니다.

“그는 걸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다”(요13:4-5) 예수님은 종들이나 하는 발씻겨주기를 손수 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만큼 발 씻겨주는 당시에 자존심 상하는 천한 일이었다고 합니다. (7513)

5. 회개 기도

아-메일함에 분명 '구O파'쪽 사람의 글로 보이는 어처구니없는 메일이 하나 들어와 있었습니다. “오늘날 한국의 종교 목사들이 예수님이 원죄는 씻었는데 앞으로 짓는 죄는 회개하고 자백해야 죄가 씻어진다는 거짓 복음의 종노릇을 하며 하나님의 종으로 대접을 받고 있어 종교인들을 다 지옥으로 보냈고 보내고 있다.” 이 사람은 지금 거짓말로 자기가 '이단'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한국종교 어느 목사가 '앞으로 짓는 죄는 회개하고 자백해야 죄가 씻어진다'라고 했는지 그렇게 말한 목사의 이름을 단 한 명이라도 찾아내어 증거로 제시해 보시라.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가 죄를 지으면 자백(회개)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중략)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요일1:8-10)

만약 죄를 짓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뵈올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죄를 지었을 때는 반드시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그분의 용서를 구하는 회개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회개하여 지은 죄를 벗겨내고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회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는 이미 받은 칭의가 무효가 되어 다시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칭의가 현실점에서 다시 적용되는 것입니다.

구O파 계열의 이단은 미래에 지을 죄까지 이미 다 용서받았다며 죄짓는 일에 거리낌이 없고, 매사에 거짓말을 하고, 회개하지 않아도 된다고 사기를 치는 뻔뻔한 자들입니다. (7514)

6. 구원과 겸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완벽하게 창조셨습니다. 당연히 사람도 하나님의 선 하심과 영광을 따라 완벽한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자신을 완벽하게 만들어주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 즉 '겸손'이아말로 반드시 필요한 최고의 덕(德)이며 의무이며 존재의 이유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하늘의 어떤 천사들이 자기만족에 빠져서 스스로를 높이다가 불순종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리하여 하늘의 빛 가운데에서 바깥 어두움 속으로 내쫓겼습니다. 쫓겨난 뱀이 교만이라는 독약을 우리의 첫 조상인 아담과 하와에게

주었을 때, 그것을 거부하지 않고 받아버림으로 인간은 완벽, 완전에서 탈락하고 말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빠져 허덕이고 있는 온갖 비참함이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자기를 높이는 교만은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지옥의 문이며 지옥의 저주입니다.

잃어버린 겸손을 되찾아 회복하는 것 외에는 하나님과의 진정한 교제 가운데로 들어갈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겸손을 회복시켜서 겸손을 소유하게 하여 구원을 받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것입니다.

만약 진짜 '구원받았다'면 그 증거로 '겸손'이 있어야 합니다. 삶 가운데 겸손이 없으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것도, 하나님의 자비를 체험하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일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도, 기쁨도, 사랑도, 강건함도 모두 겸손에서 나옵니다. 겸손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뿌리내리는 유일한 토양입니다. (7515)

7. 겸손 하려면

겸손이란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린다거나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시는 그 '무엇'이 아닙니다. 겸손은 '나는 전적으로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의식입니다. 나는 나의 뜻과 생각과 감정을 총동원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런 도구와 그릇이 되기 위해 기꺼이 나를 비우는 것을 '겸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겸손에는 하나님이 과연 '만유의 주'시라고 인정하는 행동이 뒤따르게 됩니다. 겸손한 그리스도인은 거룩을 추구하고 고백하는 신실함과 의로움이 있습니다. 그 사람과 하나님이 온전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첫 번째의 증거가 겸손입니다.

그렇다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 오면서도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 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겸손은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겸손을 소원해야 하고, 겸손을 위해 기도해야 하고, 겸손을 믿고 실천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점을 제자들에게 구체적으로 거듭거듭 강조하셨습니다.

교만처럼 사람에게 자연스러운 것이 없고, 교만처럼 간교한 것이 없고, 교만처럼 은근슬쩍 우리 눈에 감추어진 것이 없습니다. 교만처럼 위협하고 교만처럼 위선적인 것이 없는데, 그런 교만은 배우지 않아도 저절로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겸손은 저절로 생기지 않습니다.

겸손을 방해하는 교만을 물리치고 삶에 겸손이 습관처럼 베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무능한지를 주님께 고백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앞에 나의 연약함을 내려놓아야 주님의 도우심으로 겸손하게 되는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7516)

8. 겸손을 구합니다

자기의 교만 때문에 하늘에서 쫓겨난 사탄이 지옥에서 가져와 아담과 하와 속에 집어넣은 '교만'의 독은 아담과 하와의 영혼과 피와 생명을 파괴하고 이어서 그의 후손들과 이 세상을 엄청난 힘으로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온통 가득 차 있는 온갖 비참한 상태와, 국가들간의 저 끔찍한 전쟁과, 인간들의 이기적인 행위와, 속임수와, 야망과, 질투와, 상한 마음과, 불행은 모두 이 악한 교만의 결과들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만든 피조물인 인간들이 사탄에게 고통받고 있는 것을 그냥 두고 보지 못하시고 당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은 인간의 본성에 마귀의 생명인 '교만'을 몰아내시고 하나님의 생명인 '겸손'을 집어넣어 주셨습니다.

겸손은 예수님의 삶의 첫째가는 포괄적인 은혜이며, 속죄의 비결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건강과 강건함은 전적으로 예수님의 '겸손'의 은혜로 옷을 입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믿고 가장 사모하며 구해야 할 최고의 기도 제목은 "주님! 제가 겸손을 구합니다."입니다.

나의 존재 전체가 마귀의 소유에서 떠나 예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나의 동의를 필수적입니다. 그것을 '믿음의 고백'이라고 합니다. 믿음의 고백을 했다면 이제 해야 할 한 가지 일은 나의 본성 안에 주입된 예수님의 겸손의 생명을 알고 신뢰하고 공부하는 일입니다. 만약 아담이 사탄의 유혹을 거절했더라면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영원한 행복이 되었을 것입니다. (7517)

9. 예수님의 자기포기

겸손은 '나는 전적으로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의식입니다. 겸손은 하나님께서 만우가 되시도록 거기에 사람이 동의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동의함으로써 사람은 하나님이 역사하심에 전적으로 굴복하는 것입니다.

이 굴복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잘 보여 주셨습니다. "아들이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요5:19)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는 고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요5:30)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요5:41).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요6:38)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요7:16)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로라."(요7:28)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요8:28)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요8:42)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요8:50)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요14:10)....

예수님의 말씀은 그분의 삶과 사역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아무것도 아니셨고 하나님께서 만유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뜻과 자신의 권능을 전적으로 포기하셨고 오직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본받아야 할 그리스도의 ‘겸손’입니다

온통 ‘자기 자랑’으로 가득 찬 오늘날의 ‘주의 종(?)’님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자기 자랑거리가 많은지 이력서를 앞뒤로 가득 채우고도 남습니다. 화려한 스펙과 거대한 교회당과 그를 추종하는 교인들을 등에 업고 하나님을 헐뜯습니다.(7518)

10. 제자들의 겸손

겸손 그 자체이신 예수님께 직접 보고 듣고 배운 예수님의 제자들은 얼마나 ‘겸손의 사람들’이었을까요? 놀랍게도 그들에게서는 겸손이라고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열렬히 사모하여 항상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사람들입니다. 이로 보아 겸손이 없어도 얼마든지 적극적이고 열정적인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능력있는 사역자들, 성령의 은사가 풍성하게 나타나 축복의 통로가 되고 있는 은사자들 가운데 ‘겸손의 은혜’가 없는 분들이 많습니다. 설교나 집회를 하면서 반말이나 짹짹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서 배우라.”(마11:29)고 하셨고 직접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실습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별로 배운 것이 없었습니다. 이로 보아 아무리 외형적인 가르침과 온갖 개인의 노력이 있다 해도,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해서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된다 해도 그것이 교만 마귀를 정복하는데, 혹은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갖는 것과는 별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뒤집어져서 ‘겸손의 사람들’이 된 것은 오순절 성령강림 사건이 있고 나서입니다. 우리가 진짜로 겸손의 사람이 되려면 우리의 노력이나 무슨 방법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의 신적인 겸손이 내 속에 들어와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 자신이 교만 덩어리이며, 교만이 우리의 본성이며, 교만하지 않으면 뭔가 허전하고 손해 보는 것 같으니 우리는 도대체 어찌 된 사람들인지요? (7519)

©최용우



낙화 (사진:최용우)

꽃길만 걸어요

운동산책길에 길가에 쪼그리고 앉아 떨어진 철쭉 꽃 사진을 찍고 있었더니 멀리서 동네 할머니가 다가와 “뭘혀?” 하고 묻는다.

“꽃 떨어진 것이 이뻐서 사진 한 장 찍어유”

할머니는 대충 결눈질로 보더니 뒷짐을 지고 그냥 가신다.

밤새 바람이 많이 불더니 아직 싱싱한 꽃들도 많이 떨어져서 길바닥이 ‘꽃길’이다. 사진을 찍고 ‘꽃길만 걸어’ 집에 왔다. 와~ 나도 꽃길을 걸었다.^^

‘꽃길만 걸어요’는 ‘좋은 일만 생기기를 바란다’는 비유적인 표현인데, 언젠가 영어를 잘하는 분이 “꽃길만 걸어요를 영어로 여자들에게 하면 큰일 납니다. 영어로는 ‘매춘부의 길을 걸어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집니다.”라는 말을 들은 기억이 난다. 음... 참 좋은 말이 여자들에게는 조심해야 하는 말이라니...

병원에 잘 왔어요.

바람을 맞고 감기에 걸려 기침을 한 지 일주일이 넘었다. 서울의원에서 지어온 약을 대충 먹고 다 나았는데, 목에 가래가 낀 것은 그대로이다. 에~액! 에~액! 하면서 목에 붙은 가래를 떼어낸다. 가래가 계속 나오면 혹시 폐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겁부터 난다.

그래서 오늘은 내과 전문의가 있는 '영상의학과의원'에 갔다. 의사는 나의 설명을 듣더니 웃으면서 "아이고~ 참 잘 오셨네. 그냥 내비 뒤편 닳았는데 우리 병원 돈 벌여 주려고 오셨네~."

요즘 유행하는 감기가 그렇게 일주일 넘도록 목에 가래가 앉는 감기라고 한다. 이왕 왔으니 가래 없애주는 약 두 가지만 처방해주겠다고 한다. 처방전을 들고 약국에 가니 "2000원입니다."

집에 오면서 큰 차 앞에 당당하게 서 있는 풀 사진을 찍었다.
뭔가 상징성이 있는 사진처럼 보인다.ㅋㅋ



어머니날 카네이션

어머니날이라고 작은딸 밝은이가 서울에서부터 카네이션 화분 하나 사 들고 내려왔다. 처음 보는 신상품 꽃이다. 꽃을 보다가 꽃이 질 때쯤 밖에 있는 화분에 옮겨심어 키우자고 했다. 전에도 그렇게 옮겨서 몇 년 키운 적이 있었다. 그런데 3년쯤 지나니 꽃송이가 점점 작아지다가 '패랭이꽃'이 되는 것이었다.

저녁에는 해물탕집에 가서 '해물탕'으로 저녁을 맛있게 먹었다. 밥값도 밝은이가 결제를 했다. 아내와 나는 "아이고, 아이고... 어찌면 좋아... 그냥 엄마 아빠가 살게..."

어떻게 번 돈인지 알기 때문에 더 마음이 아파서 그냥 엄마 아빠가 낸다고 해도 어머니날이니까 자기가 내야 한다면서 결제를 한다.

자식의 지갑에서 돈 나가는 것이 부모 지갑에서 나가는 것보다 더 안타깝다. 그것이 부모의 마음인가 보다.



쉽지 않은 마음

대평시장 입구 쌍방울메리야스 건물 4층 꼭대기에 새로운 교회가 하나 생겼다. 언제부터 거기에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멀리서 문득 하늘을 올려다보다가 교회 이름이 눈에 들어왔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 보았다. 그런데 3층 오락실에서 피는 담배 연기가 계단을 통해 4층으로 모락모락 다 올라와서 자욱~ 하니 복도가 오소리굴 같았다. 아주 작은 건물인데, 4층을 사무실과 반씩 나누어 사용한다. 반을 나누니 더 작은 미니교회가 되었다.

‘성령과 찬양이 충만한 코러스 장로교회’

장로교 컨셉과는 뭔가 안 맞는 거 같은데, 어쨌든 ‘성령과 찬양이’ 충만하다니 한번 모임에 참석해 보고 싶기는 하다. 문이 닫혀 있어서 손잡이를 잡고 기도 한번 세계 해 주고 내려왔다.

개척교회를 보는 마음이 참, 쉽지가 않네.



사랑의 만찬

해마다 대평성서침례교회에서 5월초에 ‘사랑의 만찬’을 한다. 그러니까 안 믿는 가족들이나 지인들을 초청하여 함께 식사를 하는 행사이다. 작년에는 ‘선유궁’이라는 식당을 빌려 했는데 올해는 출장뷔페를 불러 교회에서 했다.

안내하시는 집사님이 아내와 나를 맨 앞 자리에 앉히는 바람에 사람들이 다 쳐다보는 금자리에 앉아 뒤통수가 뜨거워 혼났다. 예배, 간증, 그랙 파인아워 선교사의 설교, 이름으로 삼행시 짓기... 세 시간이 금방 지나갔다.

미국 교회에서는 이런 ‘사랑의 만찬’ 시간을 자주 갖는다고 한다. 우리나라도 간혹 ‘이웃 초청 행사’를 하지만, 함께 식사를 하는 경우는 못 본 것 같다. 그런데 한국 사람은 ‘잔치’하면 먹는 것 아닌가? 이런 만찬 모임도 괜찮은 것 같다.



교회 부적 문가

대평동 한 아파트 상가에 교회가 다섯개 있어서 한번 올라가 보았다. 이쪽 출구에서 저쪽 출구까지 상당히 긴데 다양한 교파의 교회가 중간중간에 하나씩 박혀 있었다.



어떤 교회 앞에는 교회를 안내하는 안내문과 주보와 사탕이나 물티슈같은 것들이 잘 갖춰져 있었다. 어떤 교회는 그냥 꼭 잠긴 문에 교회 이름만 덜렁 있었다. 한 가지 공통점은 모든 교회 출입문에 크고 작은 <신천지 출입금지>가 붙어 있다는 것이다. '참, 교회들이 신천지 귀신을 어지간히들 무서워 하네...'

어느 신령한(?) 유튜브가 교회 문에 <신천지 출입금지>라는 문구를 붙였는데도 교회에 들어와 문제를 일으키면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방송 이후로 한국 교회가 일제히 교회 입구에 <신천지 출입금지>를 마치 '부적'처럼 붙이기 시작했다.

그런데 그것은 사실 아무 효과가 없다. 때문에 <도둑 출입금지>라 붙이는 것과 뭐가 다른가. 교회가 그렇게 1차원적인 대응이 아니라, 뭔가 생각이라는 것을 좀 하고 뭔가 수준 높고 뭔가 좀 근사한 대응을 할 수는 없을까?

개떡

장모님이 산에서 뜬 깨끗한 쑥을 삶아 쌀가루와 섞어서 반죽을 해 만든 쑥떡어리를 두 번이나 해 주셨다. 얼린 쑥떡어리를 해동시킨 다음 대충 떼어서 떡 모양을 만들어 찌면 진한 쑥색깔이 나는 개떡이 된다.



개떡은 먹을 것이 없던 시절 배가 고프니까 만들어 먹었던 '구황식품'이다. 지천에 널려 있는 쑥을 뜬어 밀가루나 쌀가루에 버무려서 떡도 아니고 뭇도 아닌 것을 만들어 배를 채웠는데, 그래서 가짜 떡이라는 뜻으로 '개떡'이라고 불렀다는 것이다.

저녁에 출출할 때 한 덩이씩 개떡을 만들어 먹는데 옛날 생각도 나고 쫄깃쫄깃하니 맛있다. 요즘은 개떡도 참 맛있게 만든다. 옛날에도 분명 개떡을 맛있게 만들 수 있었을텐데, 그때는 왜 그렇게 개떡을 개떡같이 만들었는지 몰라.

복음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하는 인간들은 아주아주 오래전부터 사후에 관심이 많았다. 그래서 고인돌이나 피라미드를 만들기도 했고 수 많은 종교가 생겼다.

그중에 유다의 구속사상에 근거한 그리스도교가 가장 오랜 세월 동안,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사후 세계에 대한 가장 명확한 해답을 주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것을 ‘구원 복음’이라고 한다. 기독교는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존재한다.

구원은 알고 보면 인간들에게 그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진리이다. 이 세상에서 다음 세상을 준비하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쉽게도 ‘구원’에 대해 각 교파, 교단, 학자들마다 조금씩 견해가 다르기 때문에 ‘주기도문’이나 ‘사도신경’처럼 명확하게 문장으로 정리된 것이 없다. 그 작업을 내가 해도 되나?



보리굴비

동네에 새로 생긴 ‘보리굴비 한정식’ 식당이 보여서 점심을 먹고 왔다. 전에도 보리굴비 한정식 식당이었는데 문을 닫았다가 몇 년만에 간판을 바꿔달고 다시 문을 열었다. 나처럼 물어보는 사람이 많는지 옛날 그 식당이 아니고 완전 다른 식당이라고 대답한다.

어릴적 삼월동 오일장터에 건어물 파는 장옥이 있었다. 장이 서지 않는 날에는 줄줄이 엮은 조기를 빈 장옥에 줄줄이 매달아 놓고 말렸던 기억이 난다. 아마도 가까운 영광에서 생 조기를 구해와서 말려 굴비를 만들던 과정이 아니었나 싶다.

여름에는 장성군 파리들이 모두 장옥으로 집합했다. 더욱 전국에서 열 손가락에 들어간다면 커다란 우전이 옆에 있어서 장날엔 쇠똥을 빨던 파리들이 평일에는 장옥으로 몰려가 조기를 빨았다.

그 파리들이 포도알처럼 달라붙은 조기를 봤으면서도 엄마가 조기를 구워주면 나도 파리처럼 달라붙어 먹었다. 아이고~ 지금 생각하니 그거 먹는 게 아니었네 예~. 요즘엔 그렇게 위생 관념 없이 말리지는 않겠지? ©최용우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산행

▲제604회 천태산(714.7m 총남 금산) 2023.4.28.

천태산은 암릉과 각종 수목이 계곡의 맑은 물과 어우러진 경치가 '설악산' 못지않게 수려해서 '충북의 설악산'이라는 별명이 붙은 산이라 한다.

천태산 주차장에서 영국사까지는 별다른 것 없는 평범한 산길이었고 영국사에서 200미터 정도 떨어진 '천태산 등산로 A코스 입구'부터가 진짜 익스트림 등산이다.

정상까지 로프를 다섯 번쯤 타고 올라가는데 그중에 75m 암벽 줄타기 구간은 정말 아슬아슬하면서도 스릴이 넘치는 곳이다. 옆으로 우회하는 길이 있지만 좀 멀기 때문에 로프를 선택한다. 올라갈 때 너무 힘을 많이 썼는데, 반대로 내려올 땐 그냥 일사천리로 쭉!

전체적으로 매우 위험한 등산로인데 친절하게 200미터마다 거리 표시가 있어서 좋았다.
(2023.4.28 홀로산행)

▲제605회 비학산277 (일출봉252m) 2023.5.9.

▲제606회 비학산278 (일출봉252m) 2023.5.16

▲제607회 비학산279 (일출봉252m) 2023.5.23

▲제608회 비학산280 (일출봉252m) 2023.5.31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산행은 2004년 1월 10일 시작되어 1주일에 1회 산행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산행을 하고 싶으신 분이 있으면 연락 주세요. 날짜를 맞춰 동행하겠습니다. 오르고 싶은 산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달려가겠습니다. 010-7162-3514 최용우



우리의 만남은 맛남입니다~

①하지-감자 환갑날

하지(夏至)입니다. 본격적으로 여름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하지 무렵이면 장마가 시작되는데 구름만 지나가도 비가 온다는 뜻으로 '하지가 지나면 구름장마다 비가 내린다.'라는 속담도 있습니다.

하지 무렵에는 감자를 캐어 밥에다 하나라도 넣어 먹어야 감자가 잘 열린다고 합니다. '하짓날은 감자 캐먹는 날이고 보리 환갑이다.'라는 말이 있는데, 하지가 지나면 보리가 마르고 알이 잘 배지 않는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하지가 지나면 감자 싹이 죽기 때문에 '감자 환갑'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감자천신한다' 하여 감자를 캐다가 전을 부쳐 먹고 감자떡을 해 먹기도 합니다. 안타까웁도 환경오염과 기후 변화로 감자는 2060년까지 수확량이 68% 감소할 것이라고 합니다.



②표지사진 이야기

동네 이장님네 화단에 해마다 피는 '왕원추리'입니다. 원추리는 꽃이 하루밖에 가지 않아서 '원 추리 (day lily)'라고 합니다. 하지만 꽃대 하나에서 보통 60개 정도 꽃봉우리가 날마다 한 두개씩 계속 나오기 때문에 거의 '한달' 정도 피는 꽃처럼 보입니다. 7-8월 세상이 온통 푸르른 가운데 눈에 확 띄는 주황색 꽃은 산과 들판 어디서든 비교적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③도서출판 소식

신간 <들꽃면지13권 도라지꽃호> 512쪽 21300원 -6월12일 출간

70권 <들꽃면지12권 장미꽃호> 504쪽 21000원 -5월10일 출간

69권 <들꽃면지11권 과꽃호> 506쪽 21000원 -4월13일 출간

68권 <들꽃면지10권 천인국꽃호> 504쪽 21000원 -3월13일 출간

67권 <들꽃면지9권 분꽃호> 510쪽 21100원 -2월8일 출간

66권 <들꽃면지8권 영경귀꽃호> 510쪽 21100원 -1월11일 출간

인터넷<교보문고>에서 '최용우'나 '책 이름'으로 검색하면 구입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교보문고>를 통해서 현재 64권을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살림 드러내기 -2023.5월 재정결산

2023년 5월(1-31일)에 후원하여 주신 분들입니다.(호칭 생략. 가나다순)
고종찬 김상식 김준경 박근식 박승현 박신혜 안희주 오창근 옥치오 이재익
이진우 임대근 장기갑 정효숙 조운학 조정옥 조정옥 지경희 최상복 한주환
감사합니다 새벽기도 성실교회 시온성교회 안디옥교회 한길중앙교회 함안중앙교회
모두 27분이 1,240,000원 후원해 주셨습니다.

○주님! 천사들을 동원하여 햇별같은이야기에 필요한 물질을 공급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천사로 부름받은 분들에게 큰 은혜를 부어 주소서!
늘 생각하면 마음을 울컥하게 하는 여러분들의 정성... 정말 감사드립니다.

○햇별같은이야기가 이 시대의 땅끝인 사이버 세상에서 악한 영들과, 사이버 이
단들과, 유사 기독교로 미혹하는 영들을 대적하여 영적 전쟁을 잘 감당할 수 있도
록 '인터넷문서선교헌금'을 작성해 주십시오. 우리는 후원자들을 '거들 짝'이라고
하며, 매일 이름을 부르며 중보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하는 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다음과 같이 일하십니다. 우리의 가장 크고 첫째
되는 일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우리의 관심은 '일' 자체에 있지 않고 '하
나님과 의 관계'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도록
진리의 복음을 전하는데 더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다음과 같은 일을 합니다.

①햇별같은이야기 <http://cyw.pe.kr>인터넷신문 2023.6.20.일까지 7548호 발행

②문서사역 -월간<들꽃편지>, 후보자료파일, 전자자료 발행

③도서출판 -그동안 71권의 책을 출판하였습니다.

④기도회 -매일 후원자들을 위해 이름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⑤나눔사역 -8곳을 후원합니다.(신학생,문서2,인터넷,북방선교2,선교사,난민)

⑥기독교피정숙터(준비)- 기독교에서는 리트릿(retreat)이란 이름으로 피정을 합니
다. 우리는 지난 몇 년 동안 작은 흙집 한 채를 빌려 <햇별같은집>이라는 이름으
로 피정사역을 하다가 지금은 잠시 쉬고 있습니다. 우리는 조용하고 한적한 곳에
기독교식 피정의집을 지어 사역에 지친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언제든지 와서 편히 쉬
어갈 수 있게 하고 싶습니다.

●월간<들꽃편지>는 따로 정해진 구독료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원
하는 분들에게 그냥 보내드립니다. 다만, 신청은 반드시 본인이 하셔야 합니다. 지
난호가 더러 남아있습니다. 원하시는 분들에게 챙겨 보내드리겠습니다.



6월 12일
새로 나온 책

제13권 합본

이 쪽지는
구원의 비밀과
마음의 양식을 담아
사랑으로 전하는
작은 선물입니다.

〈들꽃편지〉제13권 도라지꽃호
최용우 편집 512쪽 21,300원
교보문고 퍼플

〈들꽃편지〉는 화려하지는 않지만 주님 앞에 활짝 핀 꽃과 같이 아름답고 향기 나는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이들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가짜가 진짜처럼 행세하고 진짜가 인정받지 못하는 시대에, 힘들지만 진실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들꽃편지〉는 1990년 1월 창간하여 지금까지 꾸준히 펴내고 있는 기독교문서선교지입니다. 그동안 펴낸 〈들꽃편지〉를 약 500쪽 분량 정도로 합본집을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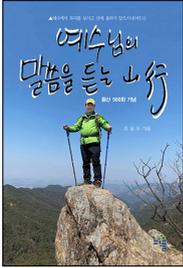
〈들꽃편지〉는 1990년 1월 창간하여 지금까지 꾸준히 펴내고 있는 기독교문서선교지입니다. 들꽃편지 제13권은 2010.11월 제502호부터 2012.9월 제524호까지 1년 10개월 동안 매월 발행한 22회분을 모았습니다.

이 시기는 〈주보자료〉시리즈 〈양육주보〉(2011년)를 만들었습니다. 주보 자료의 내용은 〈들꽃편지〉에 매월 똑같이 실었습니다. 2012년부터는 주보자료를 빼고 다시 원래대로 들꽃편지를 편집하였습니다.

2009년 4월부터 동네에 있는 빈집을 한 채 빌려 예쁘게 꾸며서 〈햇볕같은집〉이라는 자그마한 피정의 집을 시작하여 2년 동안 사역을 하고 문을 닫았습니다. 아내는 꽃차를 만드는 〈인숙꽃방〉사역을, 저는 도서출판〈들꽃편지〉사역을 통해 10여권의 책을 펴냈습니다. 이 시기에 매월 만들어서 전국에 띄웠던 월간〈들꽃편지〉를 모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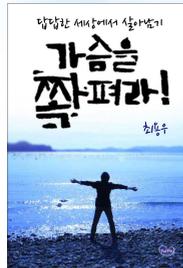
❀〈인터넷 교보문고〉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 최용우 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산행

등산-생각이 맑아지고 정신이 순수해지고 영혼은 칼끝에 선 바람처럼 자유롭네. 2004년부터 17년 동안 500회 등산을 하면서 때로는 바람으로 향기로 다가와 말씀하시느 주님과과의 산행기록 31,800원 534쪽(올컬러)



가슴을 짝 펴라!

답답한 세상에서 살아남기 -남자든 여자든 풍성한 가슴은 자부심이죠. ^^ 가슴을 짝 펴면 폐기능이 풍성하게 활성화 되어 자신감과 의욕이 부풀어 오릅니다. 279편의 자신감 회복 글 11,600원 308쪽 펴플



다시 벌떡 일어나라

아직 끝나지 않았다 -드러누워서 세상 말바닥만 쳐다보면 온통 똥물은 구두만 보입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당장 벌떡 일어나 뛰면 역전할 수 있어요. 안 늦었습니다. 286편의 도전 글 12,400원 336쪽 펴플



정정당당 잘 살자

힘없고 뺨 없고 돈 없어서 억울한 '을'인 사람들이 유난히 많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은 공의를 행하며 쪽팔리지 않게 정정당당하게 잘 살아야 합니다. 286편의 정정당당 글 모음 12,400원 336쪽 펴플



예수 잘 믿는 비결

복잡한 세상에서 길 잃지 않고-온갖 가짜들이 미혹하고 가짜가 진짜 같고 진짜가 가짜 같은 세상에서 진짜를 분별하고 진짜 예수를 따라가는 비결입니다. 288편의 순수복음 글 모음 12,100원 326쪽 펴플



가장 큰 선물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가장 큰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분이 주시는 풍성함을 받지 못하는 분들을 위하여 그분 안에서 행통하는 법을 알려드립니다. 288편의 행통 글 12,100원 326쪽 펴플

❁ 여기에 소개된 책은 <인터넷 교보문고>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샬롬! 들꽃편지는 화려하지는 않지만 주님 앞에 활짝 핀 꽃과 같이 아름답고 향기나는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이들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가짜가 진짜처럼 행세하고 진짜가 인정받지 못하는 이 시대에, 힘들지만 진실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들꽃편지 <http://cyw.kr> *들꽃숨터(피정) <http://cyw.co.kr> *햇별같은이야기 <https://cyw.pe.kr>
 *이메일 9191az@hanmail.net ☎ 010-7162-3514(문자로 먼저 용건을 남겨 주세요)
 *후원구좌 국민은행 214-21-0389-661 농협 138-02-048495 하나은행 117-891254-32307
 *30083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용포속티2길 5-7번지 들꽃편지 햇별같은이야기

들꽃편지 제653호 *발행. 편집인: 최용우 (1990.1.1.창간)